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2년 7월 13일
4. 회부일자 : 2022년 7월 14일

II.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안이유

- 정부 2차 추경에 대한 매칭 시비확보 및 결산에 따른 정리추경 등을 위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조 1,841억 6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5조 8,132억 6천만원에

대비하여 13.9%(6조 3,709억 8백만원) 증가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조 9,556억 7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5조 4,819억 6천 9백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조 2,284억 8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8,889억 3천 9백만원) 증가함.

< 서울특별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52,184,168	45,813,260	6,370,908	13.9
일 반 회 계	37,955,679	32,473,710	5,481,969	16.9
특 별 회 계	14,228,489	13,339,550	888,939	6.7

3.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세입

-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당초 8,431억 5천 1백만원에서 183억 8천 4백만원(2.2%) 증가한 8,615억 3천 5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7천 4백만원(Δ 0.3%)이 감소한 8,197 억원이 편성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6억 6천만원(97.6%)이 증액된 418억 3천 5백만원이 편성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

< 경제정책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861,535	843,151	18,384	2.2
일 반 회 계	819,700	821,976	Δ 2,274	0.3
도 시 개 발 특 특별 회 계	41,835	21,175	20,660	97.6

(2) 세출

- 세출예산은 당초 7,444억 2천 1백만원에서 87억 5천만원(1.2%) 증가한 7,531억 7천 1백만원임.

<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753,171	744,421	8,750	1.2
행정운영경비	1,543	1,543	-	-
재 무 활 동	23,810	23,810	-	-
사 업 비	727,818	719,068	8,750	1.2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6억원(1.5%)이 증가한 5,902억 5천만원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억 5천만원(0.1%)이 증가한 1,486억 8백만원이 각각 편성됨.

< 경제정책실 소관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753,171	744,421	8,750	1.2
일 반 회 계	590,250	581,650	8,600	1.5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48,608	148,458	150	0.1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14,313	14,313	-	-

- 주요 추경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4차 산업혁명 분야 인재 양성과 창업 생태계 강화,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7억 9천 6백만원을 증액함.
 - 주요 기업 지원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25억 8천 7백만원을 증액함.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공영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과 도심제조업 활성화에 34억 7천 2백만원을 증액함.
- 국비 매칭액 변동사항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기존 사업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41억 5백만원을 감액함.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2022년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의 개선과 내수 경제의 회복, 수출 및 투자의 증가 등으로 완만한 경제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계 주요국의 재정 확대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으로 인한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처럼 국제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경기하향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 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4월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4.4%에서 3.6%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 경제성장률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됨.

- 국내 경기상황은 상반기 무역적자가 103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¹⁾,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6% 상승²⁾하는 등 수출과 소비 등의 악화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부족해진 방역 수요를 보충하며 국내·외 경기여건 변동에 따라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지출 36.4조원, 법정 의무지출 23조원³⁾)을 제출함(2022.5.13.).
 - 국회 심사를 거쳐 일반지출 39조원(소상공인 지원 28.7조원, 방역보강 7.1조원, 민생·물가 안정 2.2조원, 예비비 보장 1조원), 법정 의무지출 23조원으로 확정됨(2022.5.29. 본회의 의결).
-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는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⁴⁾을 단행(2022.6.16.)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2022.7.13.)하고, 연내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들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1) 2022년 상반기 수출입 통계(산업통상자원부, 2022.7.)

2) 6월 소비자물가 동향(통계청, 2022.7.)

3) 초과세수로 53조 3천억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 종부세 전액 등) 1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 + 교육세 일부) 11조원이 지방으로 이전됨.

4) 기준금리 조정시 0.25% 포인트 단위 인상을 '베이비 스텝', 0.5% 포인트 단위 인상을 '빅 스텝', 0.75% 포인트 단위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 1% 포인트 단위 인상을 '울트라 스텝'이라고 표현함.

- 이에 서울시는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시정목표인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6조 3,709억원이 증액(13.9%)된 52조 1,84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p>안심안전도시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방주민 2,453명 대상 동행식당 50개소 운영(급식단가 8,000원) ▶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7,000원→8,000원)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약 39만명 지원) ▶ 생계유지가 곤란한 65,000가구 대상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 	<p>4,011</p>
<p>일 상 회 복 가 속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 관광수요 회복 대비 기반 마련 ▶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및 생활지원금 지원 ▶ 대중교통 손실보전(도철 1.5천억원, 시내버스 3.3천억원, 마을버스 150억원) 	<p>9,262</p>
<p>도시경쟁력 제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대로, 동북선 경전철, 진접선 차량기지 등 교통인프라 구축 ▶ 전기차수소버스 총 8,497대 추가 보급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추가 설치 ▶ 서울사랑상품권 2,120억원(광역 1,000억원, 지역 1,120억원) 추가 발행 	<p>3,834</p>
<p>의무경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교육청 지원 등 의무경비 4조 942억원 ▶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 7,650억원, 예비비 64억원 	<p>48,656</p>

2.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세 입

-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8,615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3억 8천 4백만원 (2.2%) 증액됨.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합 계	861,535	843,151	18,384	
일반회계	819,700	821,976	△2,276	
국고보조금	3,267	5,548	△2,282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99	-	199	무기질 비료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신규 도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3,039	5,460	△2,422	정부에서 지원인원 감소 통지 (28,400→15,827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9	88	△59	정착지원금 수급 인원 감소에 따른 확정내시 축소(14→4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8	1,002	6	전년도 결산액 반영 - 일자리정책과 △32 - 도시농업과 38
도시개발특별회계	41,835	21,175	20,660	
정부자금채	20,274	-	20,274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0,274	-	20,274	사업비 재원 중 정부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편성(국고보조금 30%, 국고융자 40%, 지방비 3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6	-	386	전년도 결산액 반영 - 제조산업혁신과 386

- 일반회계는 8,19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7천 4백만원이 감액 (△0.3%)됨.

- ‘국고보조금’ 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서 1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서 24억 8천 1백만원이 감소함.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은 2021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일자리 정책과에서 3천 2백만원이 감소하고, 도시농업과에서 3천 8백만원이 증가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18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6억 6천 만원(97.6%) 증액됨.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정부자금채 202억 7천 4백만원과 ‘도봉 솔루션 앵커’ 에서 장비 구입 후 발생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3억 8천 6백만원이 각각 순증됨.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⁵⁾을 위한 정부자금채(202억 7천 4백만원)는 당초 본예산 세입에 포함해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해 뒤늦게 반영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34조⁶⁾의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5)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융자 40%, 국비 30%, 시비 30%)의 2022년 사업비는 506억 8천 4백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됨(지방채 202억 7천 4백만원, 국비 152억 5백만원, 시비 152억 5백만원).

6)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세 출

- 2022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7,531억 7천 1백만원으로, 모두 21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87억 5천만원 (1.2%)이 증액됨.
 - 이로 인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경제정책실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서 1.4%로 소폭 감소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개 사업에서 86억원(1.5%)이 증액되면서 5,902억 5천만원이 편성됨.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과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공영도매 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지원 등 12개 사업에서 96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됨.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보강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조성 및 운영, 비료 가격 안정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33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국비 감액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44억 3천 6백만원이 감소함.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경제정책실 합계		(x38,847) 590,250	(x41,129) 581,650	(x△2,282) 8,600	
추가경정예산사업 계		(x3,267) 82,776	(x5,549) 74,176	(x△2,282) 8,600	
경정 책 과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6,172	4,973	1,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지원사업(600백만원) ▪규제과학 인재양성 지원사업 (50백만원) ▪신학연 선도대학 인재양성 사업 (240백만원) ▪A·5G 기반 로보틱스 모델실증사업(300백만원) ▪증액분 위탁수수료(9백만원)
경정 책 과	중소기업 자재채권 창출 지원	2,415	2,215	200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사업(200백만원)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964	914	5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부족분(50백만원)
창 업 정 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 센터 조성 및 운영	1,260	-	1,260	▪스케일업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운영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150	-	150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일 자 리 정 책 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20,255	17,169	3,087	▪안심일자리 목표인원 1,076명 증가
제 조 산 업 혁 신 과	스마트앵커 운영	8,680	8,180	500	▪자동재단실 및 스튜디오실 조성공사
	서울패션위크 개최	6,300	5,450	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초청 특별패션쇼 개최를 위한 무대 증설 및 운영(500백만원) ▪서울패션위크·트레이드쇼 홈페이지 구축(350백만원)
도 농 업 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x3,039) 3,950	(x5,460) 7,098	(x△2,421) △3,148	▪농식품부의 국비 감배정에 따른 공급 대상자 수 축소
	비료 가격 안정 지원	(x199) 331	-	(x199) 331	▪무기질 비료 가격 폭등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매칭시비 편성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7,353	5,230	2,12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공영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의 하반기('22년 7~12월)분 임대료 감면 지원
전 략 산 업 기 반 과	G밸리 산업박물관 운영	2,355	2,305	50	▪G-Tower 및 수장고 관리비 부족분 확보
바 이 오 산 업 과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2,155	1,255	900	▪특구 내 유망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확대
금 투 자 과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8,277	7,990	287	▪제2서울핀테크랩 조성 및 운영
	금융전문인력 양성 사업 운영	2,035	2,635	△600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운영기관인 KAIST 자체 예산 활용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감액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5,439	6,043	△6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창구 조성(75백만원) ▪전문컨설턴트 인건비(143백만원) ▪탐방프로그램 등(182백만원)
미 디 어 컨 산 업 과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2,370	2,170	200	▪센터 및 e스튜디오 시설물 안전 보수보강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673	423	25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종료에 따른 위법건축물 시설 철거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x29) 43	(x88) 127	(x△59) △84	▪정착지원금 수급인원 감소(14명 →4명)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시액 변경(국비 59백만원 감액)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양곡도매시장 이전 사업에서 1억 5천만원(2.1%)이 증액되면서 1,486억 8백만원이 편성됨.

< 경제정책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경제정책실		148,608	148,458	150	
도시농업과	양곡도매시장 이전	1,649	1,499	150	▪물가상승 영향으로 기존 설계 용역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해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편성

3. 신규 사업 검토

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보강

(사업별설명서, 283쪽)

- 콘텐츠기업 입주지원시설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당초 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시설로 조성하고, GTX 공사 등에 따른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을 위해 16억원을 신규 편성함.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보강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1,600	-	1,60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 100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0 -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 1,500

-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2009년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기술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숙박, 회의장 제공을 목적으로 개관함.
- 이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에 따라 2018년부터 콘텐츠 기업 임시 입주시설로 변경되어 애니메이션센터 준공 시(2025년 예정)까지 활용할 예정이었음.
 - 기업 입주시설(독립형 8개소, 개방형 1개소 14석)과 네트워크시설(컨벤션홀, 세미나실)을 애니메이션, 뉴미디어 분야 콘텐츠 기업에 제공해 현재 19개사가 입주 중임.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개요 >

- 소재지 : 용산구 한남대로 138(개관 : 2009. 9.)
- 규모 : 대지 3,012㎡/ 연면적 2,967㎡(지하 2층~지상 3층)
- 현재용도 : 콘텐츠기업 임시 창업지원시설
- 주요시설 : 기업 입주시설, 네트워킹 임대시설 등

기업 입주시설				네트워킹 임대시설
1층	2층	3층		지하1층
독립형 3개소	독립형 3개소	독립형 2개소	개방형 1개소(14석)	컨벤션홀(100석), 세미나실(20석)

- 입주현황 : 창업 7년 미만 19개 기업
- 운영방식 :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행협약 체결(2022년 예산 : 991백만원)

- 그러나 주변 GTX A 공사와 시설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하자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2022.5.25.~2022.7.31.)되면서 입주기업의 퇴거와 이전이 추진됨(2022.7월말 퇴거완료 예정).
- 이에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한정된 기업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본래 기능인 서울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활용으로 전환하고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게 됨.
 - 현재 시설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8월부터 15억원을 투입해 시설 보수·보강과 리모델링을 실시(2022.8.~2022.10.)하고, 이후 공간 운영에 필요한 시설운영비 1억원을 편성함.
-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으로의 시설 전환은 해외투자자 유치,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기회를 제공해 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컨벤션 지원시설 부족 문제의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애니메이션센터 준공전까지 창업기업 입주시설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라 기 집행한 리모델링 비용(2017년, 7억 5천만원.)이 매몰되는 문제가 있으며, 전문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전환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콘텐츠 분야 기업의 육성과 교류를 위한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대체 공간을 마련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임.

나.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설명서, 287쪽)

- 기부채납 예정 건물⁷⁾인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2관) 2개 층을 스타트업과 투자전문회사 간 매칭 공간인 투자유치 허브로 조성·운영하고자, 조성비와 운영비 12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조성 및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증액내역
1,260	-	1,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 150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10 - 리모델링 공사비용 1,110

7) 한국과학기술회관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역삼동 635-2,3,4번지) 결정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7,972.2㎡)를 변경하고, 부지 면적의 15%이상의 공공업무시설 설치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정함(서울시보 제3327호., 2015.12.24.).

- 서울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위권⁸⁾의 도시이나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Top 5 도시 대비 ‘시장 진출’이 52% 수준에 불과하고, 서울의 동남권은 창업지원시설이 부족한 실정임⁹⁾.
- 이에 VC(전문투자회사)·ACC(액셀러레이터)가 집중돼 있는 테헤란밸리의 창업생태계를 활용하고자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의 일부 시설을 투자 파트너 상주 공간과 유망 스타트업과의 매칭 장소로 활용할 계획임.

<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개요 >

- 소 유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위 치 :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 규 모 : 연면적 25,702㎡/(지하 4층~지상 11층)
- 기부채납 : 서울시 2개층 소유권 취득 예정(2022.8.)
- 주요시설 : VC공간, 투자매칭공간, 사무실, 회의실 등 (1~2층)



- 우수창업기업 발굴과 투자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시설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면서 설계·공사비용(11억 1천만원)과 인건비(1억 2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1개월분, 1천만원) 등을 반영함.
- 이 사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투자위축, 해외 사업 난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공률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8) 전 세계 280개 도시 중 글로벌 Top 10 도시 선정, 글로벌 창업 생태계 보고서(스타트업 지능, 2022).
 9) 서울시 창업시설은 총 26개소로 5대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동북권이 9개소, 서북 6개,소 서남 4, 도심 4개소
 순이며, 동남권이 3개소(소셜벤처허브, 강남),(AI허브, 서초)(먹거리창업센터, 강동)로 창업시설이 가장 부족함.

- 다만, 해당 시설의 재산 활용부서가 뒤늦게 결정¹⁰⁾되면서 소유자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온전한 형태의 시설을 제공받지 못해 불필요한 설계·공사비용 지출이 발생¹¹⁾하게 됨.
- 앞으로는 활용부서를 조기에 확정하고 시정 목적에 맞는 적정 공공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주의가 요구됨.

다.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사업설명서, 291쪽)

- 여성의 일·생활 지원시설로 운영되던 동작구 소재 스페이스 살림 내 기술창업 지원기능(F존)을 창업 전문기관(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운영하기 위해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시설 인수와 운영을 위한 인력 인건비(1명, 5개월) 2천만원, 센터 운영비(5개월) 1천만원, 기술개발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시제품 제작 등의 기업지원(12개사) 사업비 1억 2천만원으로 구성됨.

<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증액내역
150	-	15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 150

10) 기부채납 공공시설 용도 조정, 50+동남캠퍼스→ 창업시설.(2022.6. 평가담당관).

11) 건축·인테리어 공사, 전기 및 설비공사, 추가 소요 공사 등의 설치비용은 소유자측에서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건물 활용계획이 변경되면서 반영이 어려워져 해당 시설 설치를 위한 조성비(11억 1천만원)가 반영됨.

- 스페이스 살림은 양성평등 경제 실현을 위한 국내 최대 여성스타트업 지원 공간(개관 2020.11.20.)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였으나, 창업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스타트업 입주공간 등의 운영 업무가 창업정책과로 이관됨(2022.5.).

< 서울창업센터 동작 시설개요 >

- 소재지 : 동작구 노량진로 10(대방동 340-4)
- 규모 : F 존 지상 1~7층(2,887㎡)
- 공간현황 : 여성기업 전용 입주공간(47개실, 2,120㎡), 공용 공간
 - 지상 1~2층 : 여성기업 8개 공간 공유사무실, 라운지 등
 - 지상 3~7층 : 여성기업 39개 입주공간, 회의실(7층)

7F	스타트업 입주공간							서울창업센터 동작(경제정책실)					
6F								스페이스살림(여성가족정책실)					
5F													
4F													
3F	옥상무대	옥상정원	옥상텃밭										
2F	교육장	마을서재	사무실	교육장		교육장	카페	거점형 키움센터	식당				
1F	매장, 홍보관, 편집매장	마을부엌	마을부엌	교육장		영유아 돌봄교실	카페	거점형 키움센터	다목적홀				
B1	교육장	살림라운지		입주기업사무실			촬영실		다목적홀				
B2	교육장	살림홀	살림홀	옥상정원	먹거리매장	촬영실, 녹음실	공유사무실						

- 운영 목적과 주체가 변경되면서 사업화 검증에 집중된 ‘창업실험실’을 구축하고 아이디어 특화를 지원하며, 민간 액셀러레이터 중심 창업 보육으로 초기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게 됨.
- 현재 혁신적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단기 기술창업 실험 공간이 없고, 창업예비자 또는 초기창업자가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용 공간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창업센터 동작 운영’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이관 예정인 F존은 당초 여성기업·단체 등의 연수시설로 사용하고자 조성된 공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임시로 스타트업 입주공간으로 활용된 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로 공간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창업 관련 신규 사무 대행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조직과 정원에는 반영되고 있지 못하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의 조직 확대와 증원이 필요함.

라.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별설명서 314쪽)

-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3억 3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국비 1억 9천 9백만원과 시비 1억 3천 2백만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됨.

< 비료 가격 안정 지원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x199) 331	-	(x199)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상사업보조 331 -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 331

- 무기질 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유가와 해상운임이 상승하면서 비료 원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농업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농협과 함께 농업경영체¹²⁾로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보전하는 사업을 시작함.
- 서울시는 관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8개 자치구 분포) 1,138톤 규모의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국·시비, 농협의 분담지원으로 총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국비 30%, 시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 무기질 비료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계획 >

(단위: kg, 백만원)

자치구	판매 예상물량	국비(30%)	시비(20%)	농협(30%)
강남구	150,022	26	17	26
강동구	50,599	9	6	9
강서구	323,548	56	38	56
도봉구	107,374	19	12	19
서초구	104,282	18	12	8
양천구	140,863	25	16	25
은평구	228,456	40	27	40
중랑구	33,287	6	4	6
합 계	1,138,431	199	132	199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뜻함.

- 비료비 상승은 농가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업인의 농작 포기를 초래해 식량안보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시민 생활농업 교육’ 등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한 국비매칭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해 보조금 반납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서울지역 농업인 특성에 맞는 사업의 발굴과 참여 유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도시농업과 국고보조금 주요 반환사례 >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반환금	발생연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952,000	2,379	949,621	2021
시민 생활농업 교육	632,450	449,942	182,508	2020
귀농귀촌 전문교육	198,884	141,091	57,793	
논 타작물 재배 지원	34,000	-	34,000	2019

4. 주요 사업 검토

가.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별설명서, 269쪽)

- 정부와 공동으로 산학연 R&D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 선정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¹³⁾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1억 9천 9백만원(24.1%) 증액된 61억 7천 2백만원이 편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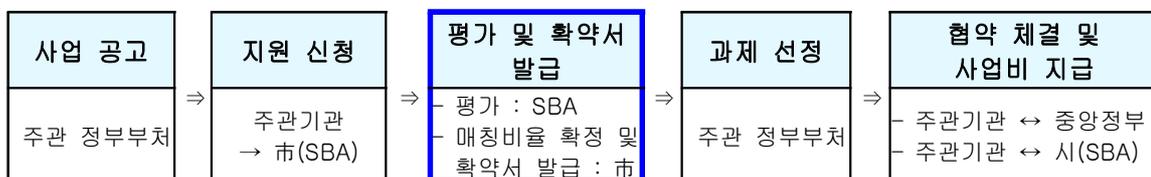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증액내역
6,172	4,973	1,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금 - 신규과제 대응자금 1,190 - 위탁수수료 9

- 이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에 서울 소재 연구기관 등이 대응투자 협약서를 서울시(SBA)에 요청하고 공모 신청과 평가, 과제선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의 절차로 진행됨.

< 사업추진 절차 >



13)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은 정부 R&D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대비 10% 내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탁하고 있음.

- 그 동안 서울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 인재양성, ▶ 혁신 중소기업 지원, ▶ R&D 저변확대, ▶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해 서울시의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음.
- 2022년 현재까지 학술지 논문 2,839건, 지식재산권 출원 1,304건, 기업지원 387건, 연구인력 양성 25,284명 등의 실적을 보임.

<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의 연도별 성과 >

(단위 : 건, 명)

사업년도	과학기술연구성과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연구성과활용			인력양성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	수상/인증 /포상실적	출원	등록	기업지원	사업화	서울시정 활용기술	연구인력 양성	연수지원
2005-2011	1,832	4,440	157	361	186	20	7	6	4,761	3,689
2012	254	663	27	57	37	7	27	0	450	119
2013	169	553	52	85	18	16	16	3	5,562	97
2014	42	68	46	77	0	20	27	2	6,225	79
2015	25	44	91	67	0	30	0	5	7,015	84
2016	45	50	74	32	13	1	20	6	306	59
2017	64	101	97	122	41	29	24	4	161	100
2018	54	90	92	116	38	1	42	2	100	87
2019	82	81	86	122	49	43	12	5	192	8,453
2020	114	86	101	87	18	116	33	5	311	111
2021	158	305	139	178	58	104	52	8	201	559
계	2,839	6,481	962	1,304	458	387	260	46	25,284	13,437

-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증액된 R&D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친환경차 R&D 인프라를 대학과 공공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5년간 30억원을 지원함(2022. 5월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은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안정성, 유효성 평가 분야와 식품·의료제품 규제정책연구 분야의 핵심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간 총 2억원을 동국대학교에 지원함 (2022.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선정).
- ‘산학연 선도대학 인재양성사업’은 산학연협력 성장모델 확산을 통해 미래 인재양성과 기업가형 대학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년간 총 14억 4천만원을 동국대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지원함 (2022. 4월 교육부 선정).
- ‘AI·5G 기반 로봇융합모델 실증사업’은 서비스로봇 전문 기업 발굴을 통해 로봇을 활용한 국민 편의 증진과 로봇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년간 총 6억원을 ‘우아한 형제들 콘소시엄’에 지원함(2022. 6월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신규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과제명)	소관부처	주관기관	사업기간	전체 지원금액 ('22년 지원금)	비고
합계					5,240,000 (1,190,000)	
1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지원	산업부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5년	3,000,000 (600,000)	총 연구개발비의 10% 내외 서울시가 지원
2	규제과학 인재양성	식약처	동국대	4년	200,000 (50,000)	
3	산학연 선도대학 인재양성	교육부	동국대, 서울과기대	6년	1,440,000 (240,000)	
4	AI·5G 기반 로봇융합모델 실증	산업부	우아한형제들 콘소시엄	2년	600,000 (300,000)	

- 이 사업은 본예산 확정 이후 다음 회계연도 중에 정부 매칭 사업에 신규 선정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가피하게 증액되어 왔음.
- 그러나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의 연구성과를 서울시정에 활용한 사례는 총 46건에 불과함.
- 따라서 정부지원 과제에의 서울시정 접목도를 높여야 하고 제품 상용화와 판로개척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업별설명서, 273쪽)

- 중소기업과 서울시민의 지식재산권(IP) 관련 단계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허청에서 신규 추진하는 ‘소상공인 IP역량 강화’ 사업의 서울시 부담분 2억원(9.0%)을 증액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2,415	2,215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금 200 - 사업비 167 - 운영비 등 사업관리비 33

-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사업은 서울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내 상표 출원(60만원/건)과 브랜드 개발(3,240만원/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4개사, 124건의 사업지원을 목표로 국·시비 각각 2억원을 편성함.

- 21세기 들어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으로 작용함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¹⁴).
-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는 R&D 인력 및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인식의 부족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화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는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브랜드가치 제고 등 지식재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부터 ‘서울지식재산센터(이하 “지식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임.
- 2022년에는 지식센터 사업비로 총 35억 7천만원(시비 23억 2천 5백만원, 국비 12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해 3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행 중임.

< 2022년도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지원목표 및 예산세부내역 >

(단위: 건/개, 만원)

구 분			지원목표			예산액		
			지원	지원 기업수	출원 지원	총액	시비	국비
① 지식 재산권 창출 · 보호	창출	해외 권리화 지원	100	80	100 (해외)	304	304	-
	보호	심판·소송 침해물품단속 지원	40	32	-	143	143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46	46	-	115	115	-

14)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에서 혁신이 생겨나고 부(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환경에 적응, 국가 간 심화되는 기술과 전문인력의 불평등을 극복, 경제활동 영역과 공공 인프라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 중 하나로 ‘지식재산 제도’를 꼽음(세계경제포럼 2016. 1.).

(단위: 건/개, 만원)

구 분			지원목표			예산액		
			지원	지원 기업수	출원 지원	총액	시비	국비
· 활용 · 교육 · 지원		소계	86	78	-	259	258	-
	교육	IP인식제고 교육	10회	-	-	16	16	-
		소 계	186	158	100 (해외)	578	578	-
②IP 스타 기업 육성 (서울시 + 특허청)	글로벌 IP스타 기업육성 (수출기업)	-특허·디자인융합 -비영어권브랜드	3	30	-	708	354	354
		-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심화) -디자인맵(심화) -브랜드디자인융합	15		-			
		-특허맵(일반) -디자인맵(일반) -신규 리뉴얼브랜드 개발 -제품·포장디자인 개발 -홍보영상 제작	23		6 (국내)			
		해외출원 및 등록지원	76		76 (해외)			
		소 계	117		82 (국내외)			
		중소기업 IP보호지원 (중소기업)	21		20			
	IP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	34	34	34 (국내)	596	298	298	
	IP디딤돌 프로그램 (예비 창업자)	-국내출원, IP후속지원 (3D모형, 해외출원 등)	81	60	60 (국내)	210	105	105
		-IP창업스쿨 등	5	-	-			
		소 계	86	60	60 (국내)	210	105	105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 클럽	13	40	-	10	5	5
	소상공인 IP역량강 화 (신규)	국내권리화(상표), 공동브 랜드 개발	123	64	120 (국내)	134	-	134
		소상공인IP교육 및 상담	10회	-	-			
		소 계	123	64	120 (국내)	334	167* (예정)	167
		소 계	394	248	297 (국내외)	1,972	986	986
③지식재산 상담·컨설팅(내부전문가)			1,050	1,050	-	-	-	-
사업비 소계(A:①+②+③)			1,630	1,456	397 (국내외)	2,549	1,563	953
사업관리비(B)	운영비·인건비·위탁수수료		-	-	-	1,021	761*	259
총 계(A+B)			1,630	1,456	397 (국내외)	3,570	2,325	1,245

-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지식재산 피해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효과가 있음.
- 다만,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확정 통보받은 시점(2021.10.14.)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294쪽)

- 청년 대상의 4차 산업혁명 인재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사업으로, 신규 캠퍼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30억 8천 7백만원을 증액함.
- 올해 10월 개관을 앞둔 용산·강동 캠퍼스의 내외부 간판, 교육장비 구입 등 추가 소요분(17억 8천 1백만원)을 반영하고, 연내 조성 예정인 동작·강서 캠퍼스의 사업비(12억 5천 5백만원), 일자리박람회(5천만원) 확보를 위해 증액됨.

< 청년취업사관학교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20,256	17,169	3,0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26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461

-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19년부터 SW 개발(8개 분야), 비이공계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청년취업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임.
- 현재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영등포, 금천, 마포캠퍼스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4개소(용산, 강동, 동작, 강서)가 추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경기 하방 위험과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채용기조는 경력직 위주의 수시채용으로 변화하고 있어 청년의 취업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반면에 IT·SW 분야는 현장에서 즉시 활동 가능한 실전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습득이 청년들의 새로운 취업 기회로 각광받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25개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의 캠퍼스 조성계획¹⁵⁾을 발표하는 등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있음.
-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청년의 취업교육 기회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캠퍼스를 확대 운영하는 취지는 인정됨.

15)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운영 추진 기본계획」 발표(2022.7.)

- 다만, 사업 성격에 적합한 규모의 공간을 찾는 일이 어려워 장소 물색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청년 접근성, 교육환경의 적정성 등은 등한시될 수 있음.
-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과 운영 업무를 모두 서울산업진흥원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가 산업진흥원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
- 사업계획과 사업규모의 갑작스런 전환과 무리한 확대는 부실한 사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른 민간 전문교육기관이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대행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라. 스마트앵커 운영

(사업별설명서 298 쪽)

- 도심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공간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사업으로, 소공인 수요에 맞춰 금천솔루션앵커 공간을 재배치하기 위해 5억원을 증액함.

< 스마트앵커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8,680	8,180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 480 ■ 감리비 20

- 이 사업은 기획-제조-유통 기업이 함께 입주해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조성하는 ‘스마트앵커’와 특정 업종 지원을 위해 비교적 소규모로 조성되는 ‘서울솔루션앵커’로 구분·운영됨.

- 금천솔루션앵커는 의류·봉제업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솔루션앵커(7개) 중 처음으로 개관했으며, 소공인 창업공간, 교육장, 자동재단실, 사무공간 등이 조성됨.
- 이번 추경안은 봉제 소공인의 자동재단기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설치와 온라인 의류 판매 확대에 따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에 필요한 공간 재배치 공사 비용(시설비 4억 8천만원, 감비리 2천만원)임.
- 자동재단기 월별 예약 건수를 살펴보면, 적정작업량¹⁶⁾의 160%를 초과(일평균 9건)하면서 1대의 재단기로 재단실을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영 스튜디오는 도심권역(V-커머스)과 북부 권역(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에 제한되어 있어 권역별 안배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면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함.
- 다만, 공사비용을 포함한 사업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강북솔루션앵커 사업의 명시이월 예산으로 공간 재배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의회가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해 부동의 할 경우 매몰 비용이 과다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16) 재단기 1대당 적정 일일 적정 예약 건수:5건/일

- 산출근거: 1일근무시간/1건당 소요시간 = 8시간/1.5~2시간 ≒5건
- 1건 소요시간: 1.5~2시간(장비세팅, 디지털 작업, 연단, 재단)

마. 서울패션위크 개최

(사업별설명서 304쪽)

- 국내 디자이너 패션쇼 개최, 해외 바이오 초청 등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패션쇼 확대 추진과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8억 5천 만원을 증액함.

< 서울패션위크 개최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6,300	5,450	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운영비 72 ■ 행사운영비 500 ■ 전산개발비 278

- 세계 5대 패션 도시 진입을 목표로 2015년부터 시작한 서울패션 위크는 국내외 수주 상담 지원과 바이어 초청, 시민참여 행사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표적 패션산업 육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함.
 - 코로나19 발생과 장기화로 오프라인 행사가 대폭 축소되면서 디지털 패션쇼, 패션 콘텐츠 생산 등 온라인 사업추진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지난 추계 서울패션위크(2021.10.)에서 콘텐츠 누적 조회수 8,221만뷰를 기록하며 홍보 성과를 높임.
- 이번 추경안은 올해 오프라인 행사를 전면 확대하면서 시민참여 행사 개최(5억원)와 노후화된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 개편(공공운영비 7천 2백 만원, 전산개발비 2억 7천 8백만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환경 변화, 홈페이지 노후화, 그간의 성과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연간 두 차례 실시되는 행사의 적절한 예산안배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실시한 춘계 행사에서 당초 계획된 예산 27억을 초과한 30억 5천만원이 집행됨.
- 또한, 노후화된 서버(2015년 구축)로 인해 춘계행사에서 홈페이지 접속량 폭증으로 서버가 네차례 셧다운 되는 사고가 발생함.
- 예산은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맞춰 편성된 범위에서 안분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의 전환에 따른 우려 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바. 국고보조금 감액사업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별설명서 310쪽)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별설명서 363쪽)

- 국고보조금의 확정·통보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개 사업에서 32억 3천 2백만원을 감액함.

< 국고보조금 조정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감액내역
계	(x3,067) 3,993	(x5,548) 7,225	(x△2,481) △3,232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지원	(x3,038) 3,950	(x5,460) 7,098	(x△2,422) △3,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친환경 꾸러미 공급 △3,148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x29) 43	(x88) 127	(x△59)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상사업보조 △84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¹⁷⁾’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지원과 임산부 건강증진 정책을 연결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감액으로 서울시 사업대상자가 축소되면서(28,440→15,827) 31억 4천 8백만원을 감액함.
- 2020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높은 수요와 임산부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을 바탕으로 국비 확대 편성을 예상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를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가 국회에서 일부 조정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 사업목적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도모
○ 예산규모 : 39억 5천만원(국비 30억 3천 9백만원 포함) - 지원형태 : 국비 40%, 지방비 40%(구비 28% 포함), 수혜자 부담 20%(주문 시)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연간 48만원(자부담 20% 포함)상당 꾸러미 형태로 공급
○ 지원대상 : '21.1.1.이후 출산부 및 임신부 총 15,827명 ※ 지급률: '20년도 출생아 수(47,445명)의 33.4%
○ 공급방법 : 권역별 전담업체 선정 공급
○ 주문방법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www.ecoemall.com)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후계농”)을 선발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교육 컨설팅, 사후 관리 지도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조정¹⁸⁾에 따라 8천 4백만원을 감액함.

17)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연간 48만원(자부담 9만 6천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포인트를 지원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18) 당초 14명(기존 2명, 신규 12명)에서 4명(기존 2명, 신규 2명) 감소(14명⇒4명)로 조정돼 국고보조금이 (8천 8백만원 → 2천 9백만원) 축소(2022.6.21.)되었으며, 관련 시비(3천 8백만원 →1천 3백만원)를 감액.

- 2018년 도입된 이 사업은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함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80만원).
- 국고보조금 규모 감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비지원 축소를 이유로 시비 대응을 획일적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부족재원을 시비로 보전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도모와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사업’은 농지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사례가 계속되면서 추경을 통한 감액 편성이 반복되고 있는 바, 적정 수요 산정과 사업비 편성이 요구됨.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연도별 배정 및 선발 현황 >

(단위: 명, 천원)

구 분	계 획				변 경			
	신규 배정인원	기정예산	국비 (70%)	시비 (30%)	최종 선발인원	추경예산	국비 (70%)	시비 (30%)
2020	8	(x70,760) 102,229	70,760	31,469	2	(x42,000) 61,143	42,000	19,143
2021	9	(x83,000) 119,715	83,000	36,715	3	(x43,000) 62,572	43,000	19,572
2022	12	(x88,000) 126,858	88,000	38,858	2	(x29,000) 42,572	29,000	13,572

사.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사업별설명서 317쪽)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영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전출금 21억 2천 2백만원을 증액함.

<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7,353	5,231	2,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2,081 - 공용관리비(특별방역비) 지원 41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감면해 왔음.
-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지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의 현실화와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하반기 임대료 추가지원을 결정함.
- 지원대상은 공영도매시장(가락, 강서, 양곡시장)에 입점한 소기업, 소상공인 점포 2,794개소로 임대료(시설사용료, 감면을 40~60%)와 공용관리비(특별방역비) 42억 1천 2백만원을 지원함.

-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감소분과 연동한 지원율을 기준으로 점포별 차등 지급¹⁹⁾함.

<2022년도 상반기 공영도매시장 임대료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시 장 명	지원액	5차(22.1~6월)			
		40% 지원	50% 지원	55% 지원	60% 지원
가락시장	3,803	1,466	544	374	1,419
강서시장	224	125	33	29	37
양곡시장	144	101	4	13	26
합 계	4,171	1,692	581	416	1,482

공용관리비(특별방역비) 지원: 4천 1백만원

※ 현재 6월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전으로, 6월 부과 마감 및 '22년 상반기 결산 결과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소 조정될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정책은 급격한 경영악화와 파산 위기로부터 일부 완충 역할을 하는 민생대책일 수 있음.
- 다만, 과거 임대료 지원 실적과 추세²⁰⁾를 반영하지 않아 상반기 지원예산의 과다편성(예산액: 52억 3천만원, 집행액: 42억 1천 2백만원)이 확인된 만큼 정확한 추계산출 노력이 요구됨.

19)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 규모를 점포별로 산출해 감소구간별 감면 비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40~60%를 지원했으며, 하반기는 30~40% 범위내에서 지원할 예정임.

20) 2021년도 상·하반기 평균 2,880개소를 대상으로 43억 7천 9백만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도 상·하반기 평균 2,839개소 대상 34억 4천만원을 지원했음.

아. 양곡도매시장 이전(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321쪽)

- 양곡도매시장 이전을 위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증액함.

< 양곡도매시장 이전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1,649	1,499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 -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50

- 1988년 개장되어 노후화된 양곡도매시장을 현대적 시설의 대표적 양곡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유지와 교환된 농협 소유 토지로 이전하고, 기존부지는 양재 R&D 캠퍼스로 활용할 계획임.

○ 취득재산 : 양재동 229-7번지/8,426.9㎡ (농협경제지주 소유, 나대지)
 ○ 처분재산 : 창동 1-10번지/10,184.8㎡ (시유지,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 중)

- 올해 1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설계비에 물가상승분(2억 8천 1백만원)을 반영하라는 통보에 따라 감리비(1억 5천 3백만원)와 교통영향평가용역비(1억 4천 1백만원)를 설계비로 변경함.

< 2022년 양곡도매시장 이전 예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예산	예산 세부내역
시 설 비	1,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비 1,145 - 설계공모보상비 100 ■ 교통영향평가 141
시 설 부 대 비	50	-
감 리 비	163	-
합 계	1,499	-

- 이번 추경안은 도매시장 부지 이전과 시설 신축을 위한 필수요건²¹⁾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부족분을 추경 편성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됨.
- 다만, 지난 3월 제출한 서울시 제1회 추경안에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적기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음.
-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 이 내년에 준공되는 등 예산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경으로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적합한 예산운영으로 볼 수 없음.

< 양곡도매시장 이전 사업 향후 계획 >

계 획 내 용	기 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기간 : 10개월)	2022. 5. ~ 2023. 3.
◦ 교통영향평가 용역 (용역기간 : 5개월)	2022. 9. ~ 2023. 2.
◦ 건축공사 (공사기간 : 24개월)	2023. 4. ~ 2025. 3.
◦ 공사 완료 및 시장 이전	2025. 4.

자. G밸리 산업박물관 운영

(사업별설명서, 326쪽)

- G밸리 산업박물관과 수장고 공간의 관리비가 부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2.2%) 증액한 23억 5천 5백만원이 편성됨.

²¹⁾ 양곡도매시장은 연면적 9,270㎡로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매시장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연면적 8,000㎡를 초과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함.

< G밸리 산업박물관 운영 >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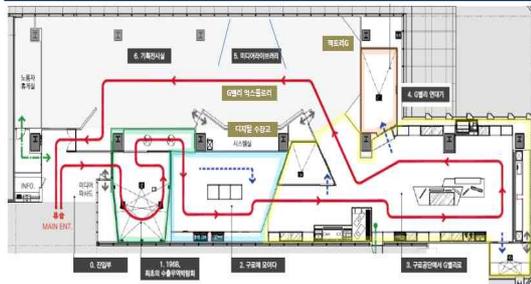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2,355	2,305	50	■ 공공운영비 - G타워 및 수장고 관리비 50

- G밸리 산업박물관은 G-스퀘어(舊정수장부지) 개발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넷마블의 박물관 공간제공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조성됨.
- G타워 내 3·9층 일부를 제공받아 상설전시실, 미디어체험실, 사무실 등을 직영하고 있음(2021.11.).

시설개요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832번지 외 3필지 (G타워 일대)
- 시설규모 : [업무시설·지원시설] 지하7층, 지상3·9층 / 전용면적 1,125㎡
[종합수장고] (주세계정밀(B동) 1·2층 / 전용면적 570㎡)
- 건축용도 : 업무시설(넷마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시설(산업박물관, 게임박물관, 2번선, 창업보육센터, R&D센터 등)
- 조성기간 : '16.6 ~ '21.10.
- 주요시설 : [3층]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미디어 라이브러리 등(270평)
[9층] 사무실, 강의·교육실 등 지원시설(71평)
[종합수장고] 재질별 수장고, 유물정리실, 정보등록실(173평)
- 공사비용 : [전시장 조성] 3,687백만원, [수장고 조성] 1,525백만원

G타워 내 전시시설 3층



전용면적 895㎡

종합수장고 1·2층



전용면적 570㎡

- 이번 추경안은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박물관과 수장고의 관리비가 실제 사용금액 대비 과소 편성돼 부족분(5천만원)을 반영함.

- G밸리 산업박물관과 수장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과 「건축법」 에 따른 공립박물관 등록 조건인 ‘문화 및 집회시설’ 로의 용도변경이 완료되지 못해 정식 개관이 미뤄진 채 임시로 운영되고 있음 (2021년 11월 임시 개관).

< 공립박물관 등록 추진현황 >

○ 등록개요			
- 대 상: 지방자치단체 설립 문화시설 중 일정 수준 이상 등록심사			
- 등록절차: 신청 → 접수·검토 → 심의 → 등록증발급			
○ 심의기준 및 G밸리 산업박물관 현황			
구분	정량 평가지표	현황	정성 평가기준
○ 자료	○ 분야별 100점 이상	적합	○ 소장품 수집계획과 규모 및 가치
○ 학예사	○ 분야별 1명 이상	적합	○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시설	○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적합	○ 부지와 시설의 적정성
	○ 수장고(용도: 창고)	용도변경 불가	
	○ 사무실 또는 연구실(용도: 업무시설)	용도변경 심의중('22.7.)	
	○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 시설	설치	
	○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 소방시설	○ 소방시설의 설치	설치	○ 운영계획과 운영예산의 적정성
○ 피난안내	○ 피난 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설치	
○ 운영	○ 연간개방일 9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적합	○ 개관 및 대관일수의 적정성

- 특히 수장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한국수출 국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설치 불가 지역인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에 위치해 현재로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로 인해 임시 개관 후 8개월간 대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공임대료 지출이 지속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함.

- 수장고 사전계획 수립단계(2021.4.5.)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가 누락된 채 조성공사를 진행 (2021.05.~12.)하여,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비(15억 2천 5백만원)가 매몰될 수 있음.

< G밸리산업박물관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통계목	본예산	추경(안)
공공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운영비 282,000 - G-Tower 관리비 25,000원*800평*12개월 - 수장고 관리비 1,500천원*12개월 - 전시실 보험비 10,000천원 - 전시실 기획전 등 발송비 9,000천원 - 교육·투어 키트 발송비 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운영비 332,000 - G-Tower 관리비 29,900원*800평*12개월 - 수장고 관리비 1,754천원*12개월 - 전시실 보험비 10,000천원 - 전시실 기획전 등 발송비 9,000천원 - 교육·투어 키트 발송비 5,000천원

차.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사업별설명서, 332쪽)

- 정부 매칭 사업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의 수행기관(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출연금 9억원을 증액함.

<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2,155	1,255	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 기술 상용화 지원 900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홍릉 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육성계획 수립과

예산을 담당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준정부기관)이 사업주체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홍릉 강소특구 육성 사업개요 >

- 추진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서울 홍릉 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1호)
 - 사업내용 : 바이오·헬스케어 특화분야 중심으로 공공기술 발굴 및 창업 지원
 - 위 치 : 3개 핵심기술기관(KIST, 경희대, 고려대) 및 배후지 5개 시설(서울바이오허브, BT-IT 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홍릉바이오헬스센터, 홍릉 R&D 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2. 3. ~ 2023. 3.
 - 사 업 비 : 57억원(국비 40억원, 시비 17억원)
 - 추진기관 : 홍릉 강소특구사업단(KIST, 경희대, 고려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추진방식 : 특화사업(유망기술 발굴·사업화) + 공통사업(집중 육성) 추진
 - 특화사업 : 기술핵심기관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아이템 특성화 전략을 실행
 - 공통사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육성 공통 플랫폼 사용*으로 경쟁적 육성체계의 맞춤 적용체계의 맞춤 적용
- * 연구소기업 기술가치 평가, 우수 R&BD과제 평가시스템, 투자·수요 연계지원, 글로벌 진출 인프라 등

- 홍릉특구 사업은 과기부와의 협약²²⁾에 따라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기정예산으로 국비(40억원)의 20%인 8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함.
- 그러나 과기부가 2년차 ‘홍릉특구 사업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40%로 상향 통보('21.8.26.)함에 따라, 지방비 매칭 부족분(9억원)을 증액하게 됨.

22)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제5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육성예산의 국비 총액대비 지방비 20% 이상을 사업 재원으로 분담해야함.

- 증액된 예산(9억원)은 홍릉특구 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제 당 최대 5천만원, 18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함.

< 홍릉특구 사업 지방비 비율 조정 결과 >

(단위: 백만원)

출연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비	4,000	2,000	2,000	2,000
지방비	1,700	900	900	900

- 홍릉특구 사업의 신속한 안정화와 사업성과를 위해 협약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지난해 8월 지방비 분담 비율이 상향 통보됐음에도 이를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주의가 요구됨.
- 한편,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지방비 분담 비율의 일방적 인상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치분권 차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음.

카.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338쪽)

- 제2서울핀테크랩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원자재·인건비 등 단가상승과 운영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천 7백만원(3.6%) 증액된 82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됨.

-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투자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등의 대면 프로그램 수요 증가와 운영 용역기간 연장(2022. 12.→ 2023. 2.) 등의 사유로 운영용역비(2억 4천만원), 임차료(2천만원)를 증액함.
- 원자재, 인건비 등의 단가상승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2천 7백만원)를 증액함.

<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8,277	7,990	2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260 <li style="padding-left: 20px;">-임차료 20 <li style="padding-left: 20px;">-운영용역비 240 ■ 시설비 23 <li style="padding-left: 20px;">-조성공사비 23 ■ 감리비 4

- 서울핀테크랩은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핀테크랩(여의도)의 기능을 확장하고 예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자 사업이 종료된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공간(마포구)을 활용해 제2서울핀테크랩을 조성 중임.
- 핀테크랩 입주기업은 창업초기 단계가 대부분이고 창업 7년 이후 안정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에서 안정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예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국내 핀테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음.

< 서울핀테크랩 사업현황 >

구분	서울핀테크랩	제2서울핀테크랩
위치	위워크 여의도점 4·5·6·8·17·19층	마포구 도화동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舊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전용면적	4,683㎡	2,014㎡
운영방식	용역('18.4.~'20.3.) → 민간위탁 ('20.4.~계속)	용역
운영기간	2018.4.~계속	2022.11. 개관예정
입주대상	창업 7년 이내 핀테크 스타트업 대상	창업 7년 이후 안정 기업 중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
입주현황	100개사 (국내 77개사, 해외 23개사/'21.9월 기준)	핀테크 10개사 협력사 5개사 내외 (글로벌 VC 및 CVC, 은행 등)
사업내용	BM모델 개발에서부터 금융기관·투자사 네트워크 확대, 분야별 1:1 전문가 멘토링	금융규제 샌드박스 완료 기업 마케팅 지원,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지원
추진성과	150개 기업 보육, 1,381억의 매출, 1,115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설립 추진중

- 다만,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용역사의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기술 용역타당성 심사가 지연되면서 연계된 세부사업들의 추진 일정이 순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용역기관의 사업기간 또한 회계연도를 넘겨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을 위반할 수 있어 계약기간의 개선이 필요함.

< 제2서울핀테크랩 사업추진 일정 및 추진내역 >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본예산)	추진기간(2차추경)	추진내역
제2서울핀테크랩 설계용역	2022.01~2022.03	2022.07~2022.07 (기술용역타당성심사 '22.7.14. 예정)	미진행 (일정변경)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용역사 선정 및 운영	2022.07~2022.12	2022.07~2023.02	미진행 (일정변경)
제2서울핀테크랩 조성 및 입주기업 선발	2022.07~2022.09	2022.09~2022.10	진행예정 (일정변경)
제2서울핀테크랩 개관, 운영	2022.10~2022.12	2022.11~2023.02	진행예정 (일정변경)

타.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사업별설명서, 343쪽)

- 금융전문대학원 운영을 통해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핀테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융전문대학원 사업운영기관(KAIST)이 자체 예산으로 일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보조금 6억원을 감액함.

<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증액내역
2,035	2,635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상사업보조 -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보조금 △600

-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은 서울시(시설임대·설치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금융위원회(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KAIST(교원·행정인력인건비 투입) 세 기관의 MOU 체결을 통해 학위·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는 당초 사업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조금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KAIST와 협의 과정에서 해외연수, 국제행사, 장학금 등이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²³⁾와 업무협약서²⁴⁾에 부적합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됨.

23)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5조 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경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기준경비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관련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

24)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업무협약서」제7조에 제시된 용도(장학금, 교육지원비, 인력지원비, 시설 및 관련 부대경비, 기타 사업운영경비)에 부합하지 않음

< 보조금 사업 세부산출내역 및 협의결과 >

KAIST 제출 보조금 사업계획		서울시·KAIST 협의 내용
사업 내용	예산안	
합계	600,000천원	
글로벌 해외연수 개발	100,000천원	자체 예산 활용하여 진행
디지털금융 국제컨퍼런스	200,000천원	
디지털금융 장학사업	100,000천원	
해외 교원 초청사업	100,000천원	지방보조금 예산 집행 부적절 (지방보조금 기준경비 불가사항)
디지털금융 DB 구축	100,000천원	지방보조금 예산 집행 부적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

- 이번 추경은 법령으로 정한 보조금 사업 중 부적절한 사업과 사업운영 기관이 자체 출연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적합한 예산 운영임.
- 다만, 서울시와 사업운영기관이 세출예산 편성시 「지방보조금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의무사항 등을 준수했다면 불필요한 세출예산 편성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조금 사업 관리에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됨.

파.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348쪽)

- (구)을지로청사(이하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서울투자청((구)인베스트 서울센터)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비 예산과 사업기간이 과다 소요돼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면서 시설비 6억 4백만원을 전액 감액함.

<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5,439	6,043	△604
공 공 운 영 비	100	100	-
시 설 비	0	604	△604
민 간 위 탁 금	5,339	5,339	-

- 청사는 2022년 서울메이드뮤지엄 조성이 예정되었으나, 사업 중단으로 청사 재산관리관이 경제정책과에서 금융투자과로 이관('21년 10월) 되고, 이후 서울투자청 설립이 추진됨²⁵⁾.
 - 투자청 조성비는 서울메이드뮤지엄 리모델링 비용을 기준으로 시설비 및 공사 기간을 산출하여 기정예산에 반영함.

- 그러나,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결과,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소요 예산과 기간이 예상보다 과다 산출(36억→114억, 10개월→27개월)되어 사업 중단을 결정함(2022.2.).
 - 서울메이드뮤지엄 조성비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지 않고, 평당 가액 기준으로 공사비를 임의적으로 과소 산출함(36억원).

-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2021.10.) 뒤늦은 사업 중단 결정과 1차 추경예산('22년 4월)의 감액 대상 사업에 미반영 되어 한정된 재원이 적기 적소에 활용되지 못하게 됨.

25)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구)을지로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기간 산출기준은 '서울메이드 뮤지엄' 리모델링 비용을 기준으로 함.

- 또한, 재산의 이관 이후 지금까지 약 9개월(2021.11~2022.7.)간 청사의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면서 불필요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음.
- 기정예산에 편성된 공공운영비(상하수도, 전기료 등 1억원)에서 매달 약 268만원의 요금을 지출되면서 공실 상태로 9개월 간 2천 4백만원이 지출됨.

< (구)을지로청사 공공운영비 지출내역 >

(단위 : 원)

사용내역	2021년 (11월~12월)	2022년 (1월~7월)	합계
계	3,920,290	20,221,190	24,141,480
전기요금	2,691,440	15,559,690	18,251,130
전기안전관리대행료	880,000	2,640,000	3,520,000
무인경비시스템유지보수	330,000	1,155,000	1,485,000
청소비용	-	770,000	770,000
수도요금	18,850	85,300	104,150
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	-	11,200	11,200

-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청사 활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필요사업 및 부서로 건물 이관을 추진해야 함.

하.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353쪽)

-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게임스포츠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e스타디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 장비의 설치와 보수를 위해 2억원을 증액함.

< e스타디움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2,370	2,17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무정전전원장치(UPS) 50 - 향온향습기 50 - 센터 및 e스타디움 안전장비 보수보강100

- 이 사업은 ▶ 게임산업 육성, ▶ e스포츠 활성화, ▶ 건전게임 문화조성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서울산업진흥원이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e-스포츠 경기와 중계 공간으로 사용된 서울e스타디움(에스플렉스 센터 내)은 2021년말로 운영사인 OGN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2022년부터 ‘(주)아프리카티비(운영사)’ 와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e-스포츠 리그 등을 개최 운영 중임.

< 서울e스타디움 사업개요 >

- 사업명 : 서울 e스타디움 임대·운영
- 사업내용 : 주/보조 경기장 기획, 운영 및 공공 프로그램 등 운영
 - e스포츠 대표 인프라로서 위상에 걸맞은 콘텐츠 구현
 - 서울e스타디움 기획·운영 및 국산 게임을 포함한 e스포츠경기 개최
 - 게임 관련 공공영역의 프로그램 등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48(S-plex) 내 10층 사무공간 및 12~17층
- 면적 : 임대면적 8,477.69㎡(전용면적 3,394.91㎡ + 공용면적 5,082.78㎡)
- 운영기관 : (주)아프리카티비
- 계약기간 : 2022. 1. 7. ~ 2024. 12. 31.
- 임대료 : 490,743,720원

- 그러나, e스타디움 노후화로 안정적인 방송과 대회 개최가 어렵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2.1.27.)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보수·보강(1억원), UPS(무정전 전원장치), 부품교체 및 유지보수(5천만원), 향온향습기 교체(5천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함.
-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e스포츠 경기 개최와 중계 등으로 e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임대운영계약서²⁶⁾에 따르면, 방송 등을 위한 일체의 장비 설치·운영과 유지·보수, 영업 시설물의 설치는 “운영사”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온향습기 등의 시설물 설치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거.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358쪽)

- 인디음악 창작 활동과 음악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설건축물인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개정²⁷⁾으로 위법

26) 서울e스타디움 임대운영 계약서 제7조제1항 “운영사”는 서울e스타디움의 후보조 경기장 운영을 위하여 방송 등을 위한 일체의 장비를 설치 운영하고 그 세부 내역을 진흥원에 제출하며 장비의 유지, 보수 등 모든 관리 책임은 운영사가 진다.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건축물로 전환됨에 따라 센터 철거를 위한 시설·감리비 2억 5천 만원을 증액함.

- 세부내역은 철거 및 원상복구 설계용역비(3천만원), 철거공사비(7천만원), 원상복구 공사비(5천만원), 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비(6천 5백만원) 등의 시설비 2억 1천 5백만원과 감리비 3천 5백만원임.

<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673	423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창작지원센터 철거 공사 215 ■ 감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창작지원센터 철거 공사 감리 35

- 센터는 음악활동 활성화 지원과 음악창작 기반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소유 부지(은평구 수색역 광장내)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건립(2014.11. 개관) 되어 현재까지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 민간위탁 중임(2014.5.~2022.12.).
- 그러나 2021년 1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도록 건축, 용도변경 등을 해야하는 대상에서 가설건축물이 제외됨.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처리현황 >

- 대지위치 : 수색동 380-1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철도보호지구
- 건축주 : 서울특별시
- 신고규모 : 철골조, 지상2층, 연면적 708.83㎡, 음악창작지원센터
- 연장기한 : 2022.2.14. (기 존치기간 : 2019.2.14.)
- 유관부서 협의사항(도시계획과)
 - 수색동 380-1는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으로 2021.1.12.개정(21.7.13.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의거하여 존치기간 3년('22.2.14.)까지 가능하며, 이후 존치기간 연장은 불가함.

- 이로 인해 은평구청으로부터 센터의 공용건축물(가설건축물, 문화·집회 시설 용도) 존치기간(3년) 연장 신고가 불허(2021.9.8.)되고 위법 건축물로 전환됨(2022.2.14.).
- 따라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은평구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8~9월 예정)이 되기 전에 조속히 센터 철거를 마무리 해야 하는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센터 운영 위탁사무 협약 해지와 원상복구 공사(2022.10. 예정)로 음악창작활동 지원사업(Master class : 10팀, 뮤직비디오 제작 : 10팀 선발 지원 중)과 시설 대관(243건, 1,925명 이용)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 공간 등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5
박은샘	02-2180-8064